

동일 지명의 형성 과정 고찰: 전북의 성수면과 성수산을 사례로

조성욱*

Study on Making Process of the Same Geographical Name: A Case of Sungsu-Myeon and Mountain Sungsu in Jeonbuk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과 임실군에 존재하는 2개의 성수면과 3개의 성수산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동일 지역에서 같은 지명이 부여되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수(聖壽)'라는 지명은 임실 성수산 상이암의 이성계 관련 전설에서 유래했으며, 그 시기는 1394년 이후로 추정된다. 둘째, 3개의 성수산 중에서 가장 먼저 명명된 것은 임실 성수산으로 보이며, 백운면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은 그 이후로 보인다. 시기는 1700년대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상이암이 위치하는 임실 성수산(876m), 지리적 측면에서는 금남호남정맥 상에 위치하고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백운면 성수산(1,059m)이 상징성을 지닌다. 셋째,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먼저 존재하고, 1914년 행정 구역개편 시기에 성수면이 등장했다. 임실 성수면은 임실군 성수산(876m)에서 유래했고, 진안군 성수면은 성수면 내에 위치하는 성수산(482m)에서 유래했다.

주요어 : 지명, 성수, 성수산, 성수면, 임실군, 진안군

Abstract : This research looks at the process and features of taking the same geographical names in the small region by focusing on formation process of two 'Sungsu-Myeon' and three 'Mountain Sungsu' present in Imshil and Jinan Gun distric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omination of 'Holy Life (聖壽)' was derived from the legend of related Yi-dynasty at Sang-i temple located in Imshil Mt. Sungsu, and the naming time might be estimated since 1394. Second, the first named it among the three Mt. Sungsu seen as Imshil Mt. Sungsu, and Baek-un Myeon's Mt. Sungsu and Sungsu Myeon's Mt. Sungsu are after that. That naming time can be seen before 1700s. They have the symbolic features which are Imshil Mt. Sungsu (876 m) in the historical aspect, and Baek-un Mt. Sungsu (1,059 m) in the geographical aspect. Third, Mt. Sungsu is the presence in the first, and appeared Sungsu Myeon as a new administrative district in 1914. Imshil Sungsu Myeon had originated in Imshil Mt. Sungsu (876 m) and Jinan Sungsu Myeon was derived from Mt. Sungsu (482 m) located in Sungsu Myeon. Key Words : Geographical name, Sungsu, Mountain Sungsu, Sungsu-Myeon, Imshil-Gun, Jinan-Gun

I.

지명은 자연 조건이나 인문 조건에 기반하여 만들어 지고,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 불리워진다. 또한 지명은 지역인식과 지역 범주화의 기반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이나 좁은 지역에서 동일한 지명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소통 도구로서 지명의 역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명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지명언어학과 지리학 분야이다. 지명언어학의 연구는 어휘론적 연구, 의미론적 연구, 음운론적 연구, 형태론적 연구, 응용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ac.kr)

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철수, 1982:459). 지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지명 발생의 자연조건 및 인문 조건과의 관련성(오영선, 2003; 강희순·범선규, 2005), 지명의 변화(권선정, 2004; 김순배, 2004; 조성욱, 2007), 고지명 및 고지도의 지명 연구(이기봉, 2005; 김기혁, 2007a), 지명에 기반한 지역성 파악(정치영, 2005), 지리교육에서 지명의 활용(조성욱, 2004; 심정보, 2007)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의 역할 측면에서 사회계약적인 특성에 기반한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지명의 역할과 지역인식 및 범주화 도구로서의 지명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명은 어떤 유래에 의해서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서로 인정하고 불리워졌을 때에 비로소 지명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지명은 한 번 사용된 이후 변화하기 어려운 보수성이 특징이지만, 시대적인 상황 변화나 지역 변화 그리고 지명의 한자로서의 변환 등에 의해서 새로운 지명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지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행정구역명의 경우 의미하는 지역의 범위가 변화하기도 하지만, 지역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구역명과 달리 산의 이름은 특정 산과 특정 지점을 의미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역시 서로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접하거나 좁은 지역에서 같은 행정구역명이나 산의 이름이 부여되었을 경우 의사소통 도구로서 지명의 역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을 생각하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미하는 지역을 재정리 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로 전라북도 진안군과 임실군에 존재하는 2개의 성수면(행정구역명)과 3개의 성수산(산명)의 지명 부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군경계를 접하고 있는 두 군단위 지역에서 ‘성수(聖壽)’라는 동일 어근을 사용하는 지명이 복수로 부여됨으로서 의사소통 도구로서 지명의 역할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II. 2 , 3

1. 연구 지역 및 동일 지명 분포

1) 연구 지역의 특징

전라북도에서 군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임실군과 진안군에는, 한글과 한자가 똑같은 성수면(聖壽面)이 각각 위치하며, 이 두 개 군 지역에 같은 이름의 성수산(聖壽山)이 3개가 위치하고 있다. 2개의 성수면은 면 경계까지 접하고 있으며, 3개의 성수산은 반경 8km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좁은 지역에서 같은 행정구역명(면명)과 산명이 부여됨으로서, 면명의 경우는 진안 성수면, 임실 성수면 등과 같이 앞에 군명을 붙여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산명의 경우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진안군과 임실군의 성수면이라는 면명은 모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임실군 성수면(聖壽面)은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에 위치하는 성수산(聖壽山)을 근거로 면명이 부여되었으며, 진안군 성수면(聖壽面)은 면내에 위치하는 성수산(聖壽山)에 근거하여 면명이 부여되었다(유재영, 1993). 임실군 성수면의 면소재지는 양지리(국도 30번 통과)이고, 진안군 성수면의 면소재지는 외궁리(지방도 49번 통과)인데, 두 면의 면소재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는 없고 30번 국도와 742번 및 49번 지방도로 연결되며, 두 면소재지의 직선거리는 약 9km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성수면을 ‘진안 성수면’과 ‘임실 성수면’으로 각각 구분한다(그림 1).

3개의 성수산(聖壽山)을 해발고도에 의해서 구분해 보면,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성수산은 장수군(천천면)과 진안군(진안을 및 백운면)의 경계에 위치하는 1,059.2m의 성수산이다. 두 번째는 진안군(백운면)과 임실군(성수면)의 경계에 위치하는 875.9m의 성수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안군 성수면(용포리~도통리)에 위치하는 481.9m의 성수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성수산을 각각 ‘진안 백운면 성수산(1,059m)’, ‘임실 성수산(876m)’, ‘진안 성수면 성수산(482m)’으로 구분한다.

3개의 성수산은 진안군 백운면 소재지(백암리)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 백운면 성수산과 임실 성수산의 직선거리는 약 10km(남서방향), 임실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은 직선거리가 약 14km(북서방향), 백운면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은 직선거리가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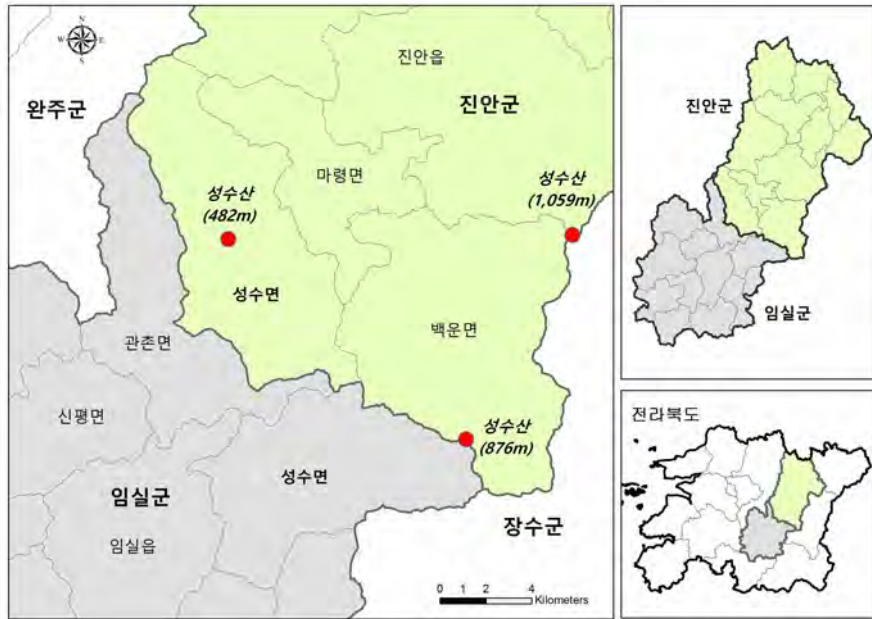


그림 1. 2개의 성수면과 3개의 성수산의 위치

15km(동서방향)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백운면 성수산은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계를 이루는 금남호남정맥(영취산~주화산) 상에 위치해서,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 수계의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임실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은 섬진강 수계에 해당한다.

2) 동일 지명의 분포 사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명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면명은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면명은 ‘남면(南面)’이다(표 1). ‘남면’은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에 분포한다. 전남의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그리고 강원도의 인제군, 양구군, 춘천시, 홍천군, 역시 강원도의 영월군과 정선군은 군 경계를 접하고 있는 군(郡)인데도 같은 행정구역명인 ‘남면’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인제군 남면과 양구군 남면은 면경계까지 접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북면’(9개), ‘동면’(6개), ‘서면’(3개), ‘산내면’(4개), ‘산외면’(3개), ‘이동면’(3개), ‘이서면’(3개) 등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 인접 군인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같은 면명인 ‘성수면’이 존재하는 것과 군 경계뿐 아니라 면경계까지 접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일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면명이 동서남북과 같은

표 1. 행정구역명으로서 ‘남면(南面)’의 분포

도단위	시군단위
강원도(6개)	정선군, 인제군, 양구군, 영월군, 홍천군, 춘천시
전라남도(4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여주시
충청남도(2개)	태안군, 부여군
경기도(1개)	양주시
경상남도(1개)	남해군
경상북도(1개)	김천시
6개도	15개 시군

방향과 산내면과 산외면과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어원에 기반한 지명인데 비하여, 성수면은 일반적인 어원이 아닌 ‘성수(聖壽)’라는 특수한 어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명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산명의 경우도 같은 산명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금산(錦山)’은 전국에 5개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군단위 행정구역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표 2). 그러나 진안군의 경우 성수산이 군 경계와 군내에 3개가 동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한글과 한자가 동일한 면명이

표 2. 금산(錦山)의 분포

도단위	군단위	해발고도*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286m
	울진군 근남면-울진읍	388m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이동면	701m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무정면	500m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영인면	286m

* 해발고도는 1 : 100,000 지형도 기준임.

나 산명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지역의 경우 군단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같은 면명을 지닌 지역이 경계를 이루면서 위치하는 점과 하나의 군 지역에 같은 이름의 산명이 3개가 동시에 위치하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모두 ‘성수(聖壽)’라는 동일 어간을 사용하고 있다.

2. ‘성수면(聖壽面)’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1) 입실군 성수면

입실군에서 성수면이 탄생한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이다. 1914년 입실군의 상동면(도인리, 양지리, 태평리, 성수리, 삼봉리, 왕방리, 오봉리 등 7개리)과 하동면(월평리, 삼청리, 봉강리, 오류리 등 4개리)을 합쳐서 1개의 면(11개리)으로 개편했고, 이 곳에 위치하는 성수산(876m)의 이름을 따서 성수면이라고 했다(유재영, 1993:443). 즉,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먼저 존재했고, 행정구역명은 1914년에 붙여진 것이다.

입실군 성수면은 전라북도 입실군의 동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60.4km²이며, 행정구분은 11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면소재지는 양지리이며, 인구는 1,833명(2013년)이다.

교통조건은 전라선 철도가 면의 남서부를 통과하며 (과거 오류역), 전주~남원 국도(17번)가 역시 남서부를 통과하고, 입실~진안 국도(30번)가 면의 서부를 지난다. 그리고 전주~순천 고속도로(27번 고속도로)가 역시 남서부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입실군 성수면은 북동쪽으로 성수산(876m)을 경계로 진안군 백운면, 북서쪽은 진안군 성수면, 서쪽은 입실읍과 관촌면, 남쪽은 지사면과 오수면 및 장수군 산서면에 접한다. 즉, 2개군(진안군, 장수군) 7개 읍면과 접하고 있다. 그리고 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는 성수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구름재 - 영대산(666m) - 오봉산(620m) -

아침재 - 한치재 - 옥녀봉 - 덕재산(484m) - 질마재 - 수류봉 - 오수천 - 17번 국도 - 용암산(356m) - 고덕산(600m) - 보현봉(790m) - 성수산(876m)으로 이어진다.

지형적으로는 섬진강의 지류인 둔남천 주변에 해발고도 200m의 좁은 평지가 있을 뿐 대부분 산지이다. 면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둔남천은 성수산(876m)에서 발원하여, 오수면에서 오수천과 합류하고, 입실군 삼계면과 동계면을 지나, 순창군 적성면에서 섬진강 본류와 합류한다. 전체적으로 섬진강 수계이다.

성수산에서 발원하는 둔남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임실)에 평당원천(坪堂院川)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임실)에는 순천(鶉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1861년)에는 ‘성수산’ 아래에서 시작되어 오수를 거쳐 지금의 오수면 둔덕리 ‘삼계석문(三溪石門)’에 이르는 하천이 묘사되어 있고, 상류에 ‘평당원천 하류에 ‘순천’이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다. 입실군 둔남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둔덕면과 남면의 통합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둔남천(屯南川)이라는 하천명은 이 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둔남천은 과거에 평당원천(坪堂院川), 순천(鶉川) 등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인다.

2) 진안군 성수면

진안군 성수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탄생했다. 1914년 진안군의 일서면(구신리, 신기리, 외구리, 좌산리 등 4개리)과 이서면(도룡리, 용포리, 좌포리, 중길리 등 4개리) 지역을 합쳐서 1개의 면(8개리)으로 개편했고, 면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성수산(482m)의 이름을 따서 성수면이라고 했다(유재영, 1993:494). 즉,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먼저 존재했고, 행정구역명은 1914년에 붙여진 것이다(표 3).

진안군 성수면은 전라북도 진안군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71.7km²이며,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면소재지는 외구리이며, 인구는 1,933명(2013년 기준)이다(표 4). 교통조건은 남북 방향으로 관촌~진안을 잇는 49번 지방도와 745번 지방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742번 지방도가 관촌~백운을 연결하고 있다.

진안군 성수면의 동쪽에 위치하는 내동산(萊東山, 887m)을 경계로 진안군 마령면 및 백운면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과 남쪽은 입실군 관촌면 및 성수면, 북쪽은 진안군 부귀면과 접한다. 즉, 1개군(입실군) 5개면과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는 내동

표 3. 1914년 행정구역 변경

면명	1914년 이전
임실군 성수면	상동면(도인리, 양지리, 태평리, 성수리, 삼봉리, 왕방리, 오봉리) 하동면(월평리, 삼청리, 봉강리, 오류리)
진안군 성수면	일서면(외궁리, 구신리, 신기리, 좌산리) 이서면(중길리, 좌포리, 용포리, 도통리)

* 진안군 성수면의 중심지는 1914년 좌포리였으나, 이후 외궁리로 변화함.

표 4. 2개 면의 비교(2013년 기준)

면명	면적	인구	법정리
임실군 성수면	60.4km ²	1,833명	11개
진안군 성수면	71.7km ²	1,933명	8개

산(887m)을 기점으로 구신치 - 대운치 - 방미산(569m) - 섬진강 - 만덕산(762m) - 조두치 - 황소마재 - 섬진강 - 내동산(887m)로 이어진다. 면의 한가운데를 섬진강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섬진강 수계에 속한다.

지형조건은 북서부에 노령산맥이 뻗어 있고, 섬진강은 이 산지를 서쪽으로 곡류하고 있다. 섬진강의 공격사면에 위치하는 성수면의 좌포리·말구릉재·발룡 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냉천(冷泉)이 위치한다. 그리고 건너편 동쪽 활주사면에는 해발고도 250~300m의 완사면이 전개되며, 그 뒤 산지에 성수산(482m)이 위치한다.

3. '성수산(聖壽山)'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1) 진안군 백운면 성수산

백운면 성수산은 진안군의 진안읍(죽산리 어은동)과 백운면(노촌리 비사량) 그리고 장수군 천천면(와룡리 신광)의 경계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1,059m이고,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5도 43분, 동경 127도 29분에 위치한다.

백운면 성수산은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및 호남정맥을 연결하는 금남호남정맥(영취산~주화산 구간)상에 위치하여,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계를 이룬다.¹⁾ 백운면 성수산을 경계로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와 오천리를 거쳐 금강 수계인 용담댐으로 흐르며,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로 흘러 금강 분류와 합류한다.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진안군 백운면으로 흘러 섬진강으로 합류한다. 즉, 백운면 성수산은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계를 이룬다.



그림 2. 3개 성수산의 산줄기 연결

백운면 성수산은 복지봉(幅址峰),²⁾ 미재산(美哉山), 미방산(美方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진안군·진안문화원, 2004:379). 그리고 '산경표'에는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남동쪽의 장수쪽에는 신광사(新光寺, 831년 창건)가 있다.

산줄기는 백운면 성수산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진안과 장수를 잇는 신광재 - 시루봉 - 오계재 - 깃대봉 - 서구이치를 지나, 팔공산 - 장안산 - 백두대간의 영취산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를 이루는 방곡재와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반월재 - 마이산 - 주화산으로 연결된다(그림 2).

표 5. 3개 성수산의 비교

산명	해발고도	경위도 위치	행정구역상 위치
백운면 성수산	1,059m	북위 35도 43분, 동경 127도 29분	진안군 백운면, 진안읍, 장수군 천천면 경계
임실군 성수산	876m	북위 35도 26분, 동경 127도 38분	임실군 성수면, 진안군 백운면 경계
성수면 성수산	482m	북위 35도 42분, 동경 127도 19분	진안군 성수면 내

2)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

임실군 성수산은 임실군 성수면(성수리)과 진안군 백운면(화암리)의 경계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876m이고,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5도 26분, 동경 127도 38분에 위치한다. 성수산을 경계로 북쪽의 물은 진안군 백운면의 백운천으로 흘러 섬진강의 본류를 이루고, 남쪽의 물은 임실 성수면 월평리를 거쳐 섬진강의 지류인 둔남천으로 흘러, 순창군 적성면에서 섬진강 본류와 합쳐진다. 모두 섬진강 수계에 해당한다.

임실군 성수산의 산계는 금남호남정맥 상에 위치하는 팔공산(1,151m)의 서쪽 지맥으로 팔공산 - 마령치 - 구름재 - 임실 성수산 - 대운치 - 내동산 - 진안 성수면 성수산으로 이어진다.

성수산의 남쪽 사면에는 상이암(上耳庵, 대한조계종)이 있는데, 고려의 왕건과 조선의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곳이다. 상이암에 전해오는 전설과 기록에서 '성수(聖壽)'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어서, '성수'라는 지명이 처음 탄생한 곳으로 추정된다.

3) 진안군 성수면 성수산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하는 성수산은 경위도상으로 북위 35도 42분, 동경 127도 19분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482m이다. 서쪽(용포리)으로는 섬진강의 본류가 곡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반룡재 - 설치재 - 내동산(887m) - 대운치 - 임실군 성수산 - 팔공산으로 연결된다.

성수산은 1914년 이전의 일서면과 일동면의 중간에 위치하며, 남서쪽 사면에는 은선암(태고종, 고려말 반룡사로 추정, 1910년 재건)이 있다. 그리고 '생남산'이라고도 불리웠다(진안문화원, 1993). 1914년 면의 중심지였던 좌포리 쪽에서 산체가 가장 잘 보이는데, 이 후 남동쪽의 외곡리로 면의 중심지가 이동되었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성수산은 모두 진안군의 지리적 범위 내에 위치하며, 이 중에서 해발고도와 금남호남정맥 상에 위치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는 진안군 백운면

의 성수산이 가장 상징성이 높다. 그리고 전설과 그에 따른 사찰의 입지 등의 역사적 측면에서는 임실군 성수산의 상징성이 높다. 진안군 성수면의 성수산은 상대적으로 상징성 측면에서 약하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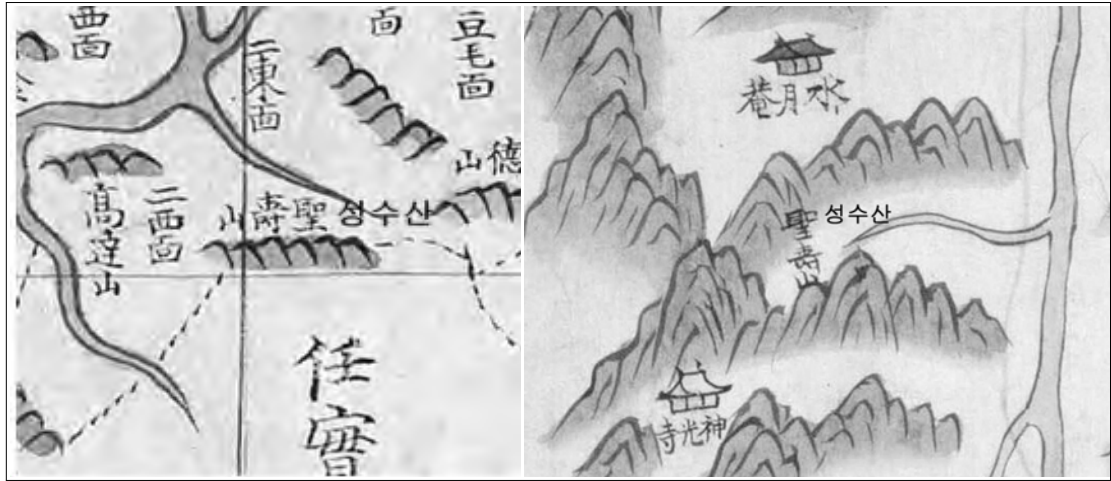
III.

1. '성수(聖壽)' 어원의 등장

'성수(聖壽)'라는 어원은 임실 성수산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는 상이암(上耳庵)에 전해오는 전설과 관련이 있다. 상이암의 전설에 따르면 성수(聖壽)라는 어원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877~943)과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1335~1408)와 관련이 있다.

'임실군 성수산 상이암 사적(任實郡聖壽山上耳庵寺蹟, 1394년)'에 의하면 고려 건국을 도왔던 도선(道詵, 827~898) 대사는 임실 성수산(876m)을 천자를 맞이할 성지로 생각하고 왕건에게 백일기도를 드리면 대망을 성취할 것이라고 권하였다. 이에 따라 왕건은 이곳에서 도선과 함께 백일기도를 드렸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3일을 더 기도한 뒤 담수(潭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왕건은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득(解得)하고, 그 기쁨을 '환희담(歡喜潭)'이라는 글씨로 남겼다. 이 후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이곳에 도선암(道詵庵)³⁾이라는 절을 세웠다(이일영, 1997).

이 후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역시 무학(無學, 1327~1405) 대사와 함께 이곳에 와서 3일동안 환희담에서 목욕을 하는데 사미(沙彌)가 함께 목욕을 하였다. 3일 목욕 후 같이 목욕했던 스님을 찾았으나 이 절에는 그런 스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스님이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계는 이 곳 바위에 '삼청동(三淸洞)'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이 후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제자인



해동지도(임실)-임실군 성수산

해동지도(장수)-백운면 성수산

그림 3. <해동지도>에 나타나는 성수산

각여(覺如) 스님과 함께 정성을 드렸는데 93일째 밤에 신광(神光)이 하늘을 꿰뚫고,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서리면서 하늘에서 '이공(李公)은 성수만세(聖壽萬歲)를 누리리라'가 3번 들렸다고 한다. 이성계는 왕이 된 이후 이 곳 도선암을 상이암(上耳庵)⁴⁾으로 이름을 고쳤다(1394년, 태조 3년).⁵⁾

이와 같이 임실군 성수산의 상이암에 전해져 오는 전설과 기록에서 '성수(聖壽)'라는 어원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즉, 성수면과 성수산 지명의 근원이 되었던 '성수'라는 어원은 상이암의 전설과 기록에 등장하는 '성수만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개의 성수산 중 임실군 성수산이 가장 먼저 지명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성수산' 지명의 형성 과정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성수산이라는 산명을 근원으로 면명을 도출한 것을 보면, 이미 1914년 이전에 이 두 개의 성수산(임실 성수산, 성수면 성수산)은 존재했었고, 면명으로 채택될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상정성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성수산명의 어원인 '성수(聖壽)'는 임실군 성수산의 상이암 전설에서 유래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문제는 3개 성수산의 산명이 동시에 등장했는가, 아니면 임실군 성수산이 먼저 부여되고 다른 두 개의 산명이 후

에 순차적으로 부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3개의 산명이 언제부터 성수산으로 불리워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동지도>(1787년)와 <광여도>(1800년대 전반), <대동여지도>(1861년), <1872년 지방지도> 그리고 1911년도에 발행된 <1:50,000 지형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문헌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여지도서>(1765년), <대동지지>(1864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해동지도>(1787년)에서는 임실 성수산과 백운면 성수산이 표시되어 있으나, 성수면 성수산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그림 3). 임실 성수산은 임실 도폭에 나타나는데 성수산 주변에 고달산과 이서면, 이동면 등의 지명과 함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고, 장수 도폭에 나타나는 백운면 성수산은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하는 신광사와 함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1700년대 후반에 이미 임실 성수산과 백운면 성수산은 성수산(聖壽山)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1861년)에서는 임실 성수산이 표시되어 있고, 백운면 성수산의 위치에는 '백운산(白雲山)'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4). 그러나 성수면 성수산은 표시되지 않았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3개 성수산이 모두 표시되고 있는데, 임실 성수산은 상이암과 함께 표시되고 있으며, 백운면 성수산은 그 위치에 복지봉(?)으로 표시되



그림 4.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성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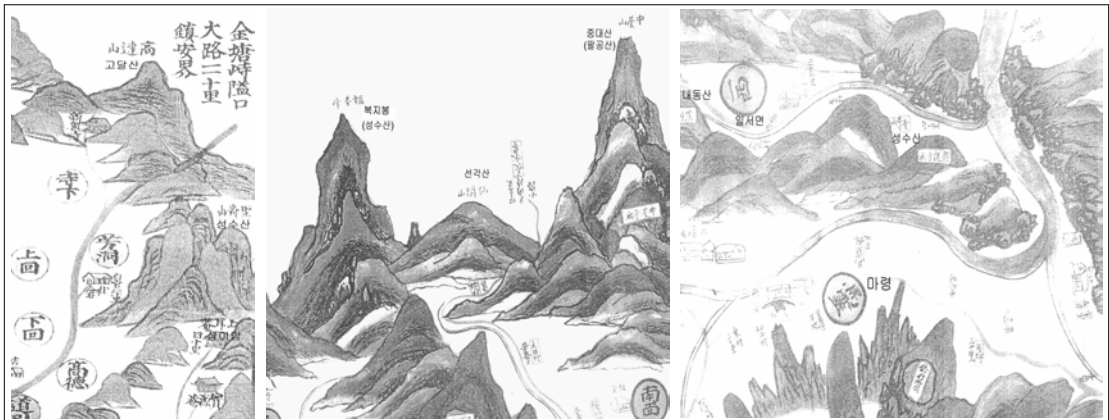
어 있다. 이 위치는 주변의 중대산(팔공산의 별칭)과 선각산의 위치로 보아 현재의 백운면 성수산의 위치이다. 그리고 성수면 성수산은 주변의 일서면, 내동산 등의 지

명과 함께 산명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그림 5). 이와 같이 1872년의 지방지도에는 3개의 성수산이 모두 표시되고 있으나, 백운면 성수산은 다른 이름(복지봉)으로 표시되고 있다.

1911년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지형도(1:50,000)의 <임실> 도면에는 상이암의 위치에 '상이사(上耳寺)'가 표시되어 있으나, 성수산(임실 성수산)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진안> 도면에서는 백운면 성수산의 위치에 성수산(聖壽山)이 아닌 한자가 다른 성수산(聖守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성수면의 성수산 지점에는 산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그림 6). 결국 1911년 지형도에는 백운면 성수산만 기록되어 있고(한자는 다르지만), 나머지 두 산(임실 성수산, 성수면 성수산)은 산명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14년 이전 지도에 나타나는 성수산 표기의 특징은, 먼저 임실 성수산은 일관되게 같은 산명인 성수산(聖壽山)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비하여, 백운면 성수산은 다양한 산명으로 표시되고 있다(聖壽山, 白雲山, 복지봉, 聖守山). 그리고 성수면 성수산은 1872년 지방지도에만 산명이 표시되어 있다(표 6).

3개의 성수산 중에서 임실군 성수산은 별명이 전혀 없고, 일관된 산명(聖壽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백운면 성수산은 별명이 가장 많다(聖守山, 복지봉, 미재산, 미방산, 백운산). 그러나 1700년 후반의 해동지도에 성수산(聖壽山)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후에 다양한 별칭이 나타나지만 이미 성수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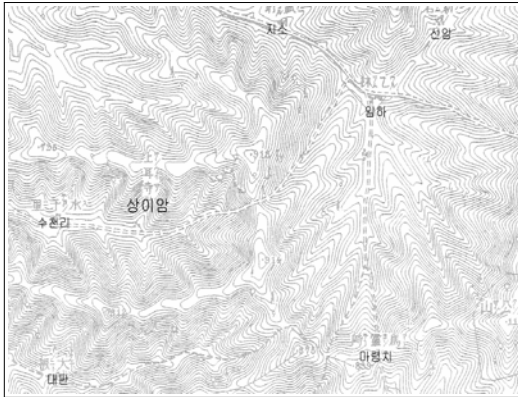


임실 성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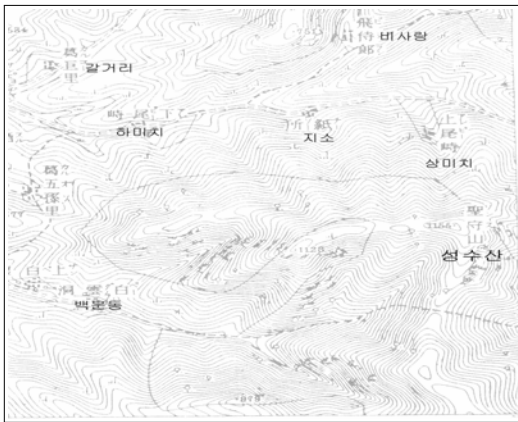
백운면 성수산

성수면 성수산

그림 5. <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나는 성수산



임실 성수산(임실)



백운면 성수산(진안)



성수면 성수산(진안)

그림 6. 1911년 지형도에서의 성수산

백운면 성수산의 다양한 별칭은 문헌의 지명을 잘못 추정하는 데서 나타난 오류도 있다. 즉, <신증동국여지

승람(진안현))(1530년)에서 [상원사(上院寺), 혈암사(穴巖寺), 쇠암사(碎巖寺)는 모두 마이산에 있다.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진안현))(1765년)에는 [상원암(上院庵)은 현의 남쪽 10리 미재산(美哉山) 아래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상원사와 상원암이 같은 사찰이라고 볼 때, 상원암이 있는 곳은 미재산이고, 미재산은 마이산에 있는 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운 성수산은 마이산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재산을 백운면 성수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별칭인 미방산(美方山)의 경우 <대동지지(진안현))(1864년) '산수' 내용에 [미방산, 백운산, 검덕산, 사자산, 만덕산 등이 기록되고 있으나, <대동여지도>(1861년)에 백운면 성수산의 위치에 '백운산'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열된 산명 중에서 백운면 성수산을 지칭하는 것은 미방산이 아니고 '백운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북지봉은 진안 방향에서 볼 때 성수산 앞에 위치하는 봉우리(1,006.8m)로 성수산은 아니다.

<산경표>에는 금남호남정맥이 영취산 - 장안산 - 수분현 - 팔공산⁹⁾ - **성수산** - 마이산 - 주출산으로 연결되는데 (현진상, 2000:141), 이 때의 성수산은 산줄기의 흐름상 백운면 성수산에 해당한다(표 7).

그리고 진안군 성수면 성수산은 등장 빈도 자체가 적은데, 이것은 산 자체의 해발고도가 낮고 대간이나 정간 등 주요 산줄기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지도서>(1765년) 진안편의 '사찰' 내용에 [반룡사(盤龍寺)는 현의 서쪽 40리 성수산(聖壽山) 아래에 있고와 같이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광여도(1800년대 전반)>에도 성수면 성수산의 위치에 반룡사와 반룡산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7). 반룡사는 고려말에 존재했던 절로서 현재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반룡마을 또는 현재 성수산에 위치하는 은선암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성수산은 성수면 성수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 '산천' 내용에 [현의 남쪽 50리에 성수산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때의 성수산은 임실 성수산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여지도서>에는 임실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이 기록되고 있으나, 백운면 성수산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성수면 성수산은 이 당시에도 성수산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지도와 기록만으로는 각 산명의 출현 시기나

표 6. 3개 성수산의 지도 표기

산명	해동지도 (1787년)	대동여지도 (1861년)	지방지도 (1872년)	1911년 지형도
임실 성수산	聖壽山	聖壽山	聖壽山	표시없음
백운면 성수산	聖壽山	白雲山	복지봉	聖守山
성수면 성수산	표시없음	표시없음	聖壽山	표시없음

표 7. 성수산의 등장 지도와 문헌

구분	별명	등장 지도(산명)	문헌
임실 성수산 (876m)	-	해동지도(聖壽山), 대동여지도(聖壽山), 1872년(聖壽山)	상이암 사적(1394년)
백운면 성수산 (1,059m)	미재산, 미방산, 복지봉, 백운산 聖守山	해동지도(聖壽山), 대동여지도(白雲山), 1872년(복지봉), 1911년(聖守山)	산경표(1800년)
성수면 성수산 (482m)	생남산, 반룡산	1872년(聖壽山)	여지도서(1765년)



그림 7. <광여도(진안현)>에 표시된 반룡산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임실군 성수산의 상이암 사적(1394년)의 기록이 존재하고 상이암에 '환희담'과 '삼청동' 등의 암각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성수'라는 어원 자체는 임실 성수산에서 발생했고, 임실 성수산이 가장 먼저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이 139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수'라는 어원은 그 이전에 등장했고, 이 지명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점은 조선개국 이후, 상이암 사적이 기록된 1394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진안군 백운면의 성수산과 성수면의 성수산의 산명이 부여된 것은 임실 성수산의 산명이 부여된 이후

최고 1400년대 까지도 추정이 가능하다. 지도나 기록상으로 보면 최소 1700년대 경부터는 두 산 모두 성수산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백운면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의 산명 등장의 선후관계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백운면 성수산의 경우 1911년 지형도에서 성수산(聖守山)으로 표시된 것은 일제에 의한 지명기록 과정에서 진안군에서 주출산(珠峯山)이 운장산(雲長山)으로 변화한 것과 같이,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조성욱, 2007).

3개의 성수산 중에서 역사적인 측면(상이암 전설)에서는 임실 성수산이 가장 상징성이 있고, 지리적 측면(해발고도, 금남호남정맥 상의 위치)에서는 백운면 성수산이 상징성을 지닌다. 그리고 성수면 성수산은 산줄기의 맨 끝단에 위치하지만, 섬진강과 바로 접하고 있어 상대적 비교차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성수면' 지명의 형성 과정

임실군 성수면과 진안군 성수면이 등장하는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기로 일치한다. 1914년에 진안군 성수면은 일서면과 이서면이 통합되었고, 임실군 성수면은 상동면과 하동면이 통합되었다. 두 지역의 면명 역시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산이기는 하지만 같은 이름인 성수산이라는 산명에서 유래하였다.

1914년 면명 부여 방법에서, 진안군은 11개면명이 모두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이 중 면명통합 1개(상전면), 과거 행정지명 도입 4개(진안면, 마령면, 용담면, 동향

면), 마을명에서 유래 1개(백운면), 자연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이 5개(성수면, 부귀면, 주천면, 정천면, 안천면)이다. 특히 자연조건에서 유래한 지명 5곳 중에서 2개는 산명(성수면, 부귀면), 나머지 3개는 하천명(주천면, 정천면, 안천면)에서 유래했다(조성욱, 2012:130).

이에 비하여 임실군은 12개 면명 중에서 원래면명이 5개(강진면, 덕치면, 신평면, 지사면, 신태면), 면명 통합이 1개(둔남면), 과거 행정지명에서 유래한 것이 2개(임실면, 청용면), 마을명에서 유래한 것이 2개(운암면, 삼계면), 자연조건에서 유래한 것이 2개(성수면, 오천면)이다. 이 중 자연 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은 성수산의 이름을 도입한 성수면과 오원천의 이름을 도입한 오천면(1935년 관촌면으로 변경)이다(표 8).

이와 같이 진안군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기존 면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면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11개의 면명 중 5개를 자연조건에 근원하여 면명을 부여했다. 이에 비하여 임실군은 기존 면명을 사용한 경우가 5개이고, 자연조건에 근원하여 면명을 부여한 경우는 2개 뿐이다.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진안군의 면명 부여 작업이 더 크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산과 하천 등 자연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이 많다는 점이다.

1914년 같은 시기에 바로 인접한 군에서 같은 성수면이라는 면명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1914년 당시에 면명 개정 작업은 군단위로 이루어졌고, 이후 동일면명 등에 대한 조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단위는 달리하지만 같은 면명을 지닌 면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인제군과 양구군 남면의 사례도 같은 경우로 보인다. 즉, 면명 부여 이후 도단위나 전국 단위에서 면명

표 8. 1914년 진안군과 임실군의 면명 부여 방법

면명부여 방법		진안군(11면)	임실군(12면)
1. 원래 면명		없음	강진면, 덕치면, 신평면, 신태면, 지사면 (5개)
2. 면명 통합		상전면(상도면 + 탄전면) (1개)	둔남면(둔덕면 + 남면) (1개)
3. 과거 행정지명		진안면(진안현), 마령면(마령현), 용담면(용담현), 동향면(동향소) (4개)	임실면(임실현), 청용면(청용현) (2개)
4. 자연 조건	산 명	성수면(성수산), 부귀면(부귀산) (2개)	성수면(성수산) (1개)
	하천명	주천면(주천), 정천면(정천), 안천면(안천) (3개)	오천면(오원천) (1개)
5. 마을명 유래		백운면(백암+운교) (1개)	운암면(운암리), 삼계면(뇌천+후천+유천) (2개)

표 9. 성수산과 성수면의 형성과정

항목별	내용
1. '성수' 어원의 등장	• '성수만세'의 소리를 3번 들음, 상이암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시기(1394년 이후)
2. '성수산' 지명의 형성시기	• 임실 성수산 (1394년) ⇒ 백운면 성수산, 성수면 성수산(1400년대~1700년대)
3. '성수면' 지명의 형성시기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처음 등장하는 면명, 산명에 근거한 면명)

의 중복에 대해서 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인접한 임실군과 진안군의 성수면이 탄생한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기였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면명이라는 점과 자연조건인 산명에 기반한 면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4. '성수' 지명의 형성과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성수(聖壽)'라는 어원의 발생과 '성수산(聖壽山)'의 지명부여 시기 및 순서, '성수면(聖壽面)'의 면명 채택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 주제별로 논의해 본다(표 9).

첫째, '성수(聖壽)'라는 지명의 어원과 등장시기이다. 성수의 어원은 이성계가 조선건국 이전에 이 곳 상이암(당시 도선암)의 담수(潭水)에서 하늘에서 '성수만세(聖壽萬歲)'라는 소리를 3번 들었다는 상이암 사적(上耳庵寺蹟)(1394년)의 기록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수산이 등장한 시기는 도선암이 상이암으로 변한 1394년(태조 3년)으로 볼 수 있다. 도선암을 상이암으로 바꾸면서 상이암이 위치하는 산의 이름도 성수산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실 성수산이 처음으로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되었으며, 그 시기는 139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3개 성수산의 산명 형성과정이다. 최초로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된 것은 임실 성수산이고, 이 후 백운면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임실 성수산 이외에 두 산에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된 것은 '성수'라는 상징성에 기인하였을 수도 있고, 같은 산줄기 상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부여되었을 수도 있다.

백운면 성수산은 <해동지도>(1787년)에 나타나기 때

문에,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된 것은 1700년대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운면 성수산은 3개의 성수산 중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1,059m)와 금남호남정맥의 팔공산과 마이산의 중간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별명(미재산, 미방산)은 문헌자료의 해석 오류로 보인다.

성수면 성수산은 1872년 지방지도에 등장하고 다른 지도에서는 표시되지 않고 있지만, 해발고도나 산줄기에서의 위치 등의 특성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1765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백운면 성수산과 비슷한 시기에 산명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수면 성수산은 임실 성수산과 직선거리로 약 14km에 불과하고, 팔공산에서 임실 성수산 - 내동산 - 성수면 성수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에 위치하는 등의 관계로, 임실 성수산 이후에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성수산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부여된 것은 임실 성수산으로 볼 수 있으며, 백운면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은 1700년대 이전부터 성수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후 관계는 알 수가 없다.

셋째, '성수면'이라는 면명의 형성과정이다. 임실군 성수면의 경우 상동면과 하동면과 같이 상하의 위치를 나타내는 2개의 면을 통합하면서, 이 지역에서 상징성이 있는 성수산을 근거로 새로운 면명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실군 성수면에는 성수산(876m) 이외에 영대산(666m), 오봉산(620m), 보현봉(790m), 고덕산(600m) 등의 산이 있지만 성수산에 비해서 해발고도나 상징성 측면에서는 약하다. 그리고 성수면을 관통하는 하천인 평당원천이나 순천 등도 면명으로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상징성 측면에서는 성수산에 비하여 약하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1914년 일서면과 이서면의 통

합에 의해서 새로운 면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 일서면과 이서면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곳 성수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수산 이외에 진안 성수면에 위치하는 산으로는 내동산(887m), 방미산(569m), 만덕산(762m) 등 성수산(482m) 보다 해발고도가 더 높은 산들이 있지만, 성수산을 면명의 근원으로 삼은 것은 성수산이 일서면과 이서면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상징성과 1914년 면 중심지였던 좌포리(과거 이서면)에서 보이는 성수산의 시각적 상징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실 성수산이 진안군과 임실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백운면 성수산이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에 위치하는데 비하여, 성수면 성수산은 면내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군이지만 면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2개의 성수면은 각각 군명을 앞에 붙여 '진안 성수면'과 '임실 성수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성수산은 면명에 비하여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지명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측면이 강한 임실군의 성수산을 '임실 성수산', 금남호남정맥 상의 위치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측면에 강한 진안군 백운면의 성수산을 '진안 성수산', 그리고 진안군 성수면 성수산을 '성수면 성수산'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과 같이 성수산과 성수면의 지명은 자연적인 조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기반한 지명이며, '성수'라는 새로운 어원의 등장으로 기존 지명을 대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좁은 지역 범위에서 같은 지명이 부여됨으로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지명의 사용에 혼란을 가져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진안군과 임실군에 존재하는 2개의 성수면과 3개의 성수산의 지명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동일 지역에서 같은 지명이 부여되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수(聖壽)'라는 어원은 임실 성수산 상이암의 이성계 관련 전설에서 유래했으며, 그 시기는 1394년 이후로 추정된다.

둘째, 성수산으로 가장 먼저 명명된 것은 임실 성수산

(1394년 이후)으로 보이며, 진안군의 백운면 성수산과 성수면 성수산은 그 이후로 보인다. 시기는 1700년대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상이암이 위치하는 임실 성수산(876m), 지리적 측면에서는 금남호남정맥 상에 위치하고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백운면 성수산(1,059m)이 상징성을 지닌다.

셋째, 성수산이라는 산명이 먼저 존재하고, 1914년 행정 구역개편 시기에 성수면이 등장했다. 임실군 성수면은 임실 성수산(876m)에서 유래했고, 진안군 성수면은 성수면 내에 위치하는 성수산(482m)에서 유래했다. 면명 부여 이전에 이미 두 성수산은 존재했었다.

좁은 지역 범위에서 같은 지명이 붙여지는 경우 실생활의 의사소통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한다. 행정구역명의 경우 '진안 성수면'과 '임실 성수면'으로 비교적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산 이름의 경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3개의 성수산을 구별하기 위하여 역사적 측면이 강한 '임실 성수산(876m)', 지리적 측면이 강한 '진안 성수산(1,059m)' 그리고 '성수면 성수산(482m)'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註

- 1)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는 금남호남정맥 상에 위치하는데, 금강의 발원지는 정맥의 북쪽면에 위치하는 뜬봉샘(장수군 수봉리 신무산)이고, 섬진강의 발원지는 정맥의 남쪽면에 위치하는 데미샘(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오계치)이다. 두 곳의 직선거리는 약 8km이다.
- 2) 복지봉은 봉우리의 굴속에 박쥐가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복지봉은 성수산 앞에 위치하는 1,006.8m의 다른 봉우리다.
- 3) 도선암은 875년 도선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1394년 각여에 의해 상이암으로 중건되었다. 이후 1894년 동학혁명 시기에 소실되었다가 1912년 중건되었다. 고려 왕건의 친필유적으로 '환희담(歡喜潭)'과 조선 이성계의 친필유적으로 '삼청동(三淸洞)'이 있다. 특히 삼청동과 이곳의 보현봉(790m)은 서울의 종로구 삼청동과 북한산의 보현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연호, 2006:80).
- 4) 상이암(上耳庵)은 성수만세(聖壽萬歲)의 소리가 '상

- 감(上)의 '귀(耳)'에 들렸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 5) 이외에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드린 기도처로는 진안 마이산, 순창 회문산(만일사), 경남 남해 금산(보리암), 함경도 안변(석왕사) 등이 있다.
 - 6) 장수군 팔공산(八公山, 1,151m)과 대구시 팔공산(八公山, 1,192m)은 한글과 한자가 동일함.

참고문헌

강희순·범선규, 2005, “거제시 마을 이름에 대한 자연지리적 해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5), 368-382.

권선정, 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 지리학연구, 38(2), 167-181.

김기혁, 2007a, “거창 고지도의 유형과 수록 지명 연구,” 한국민족문화, 29, 81-113.

김기혁, 2007b,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3), 119-142.

김순배, 2004, “지명 변천의 지역적 요인,” 문화역사지리, 16(3), 65-85.

김연호, 2006, “도선의 풍수지리관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길, 2001, 「전북의 백대명산을 가다」, 신아출판사.

성수면 향토보존회, 1998, 「성수향토지」.

심정보, 2007, “사회과 지리영역에서 지명교육의 현상과 필수지명의 선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2), 125-140.

오영선, 2003, “제주도 마을의 지명 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윤현위·정원욱, 2015, “개항장 역사·문화지구를 위한 제물포역 역명에 관한 비판적 논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85-95.

이기봉, 2005, “청구도와 동여도의 지명 위치 비정에 대한 일고찰,” 문화역사지리, 17(1), 84-102.

이일영, 1997, “임실군 성수산 상이암 사적,” 고문연구(한국고전문화연구원), 10, 182-187.

이철수, 1982, “지명언어학 연구서설(I) -지명언어학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3), 456-475.

임실군, 1982, 「내고장 전통문화」.

조성욱, 2004, “지리교육에서 지명학습의 의의와 도입방안,” 지리과교육, 6, 79-94.

조성욱,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 변화의 원인과 과정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26-542.

조성욱,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1), 125-136.

정치영, 2005, “마을명 분석을 통한 마을 입지 및 지역성 연구,” 문화역사지리, 17(2), 58-73.

진안군, 1992, 「진안군사」.

진안군, 2014, 「진안군 향토문화대전」.

진안문화원, 1993, 「진안의 지명」.

진안문화원, 2010, 「진안군 마을지」.

진안군·진안문화원, 2004, 「진안군 향토문화 백과사전」.

최규영, 1993, 「진안의 지명」, 진안문화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현진상, 2000, 「한글 산경표」, 풀빛.

<광여도(진안)>
 <대동여지도>
 <대동지지(진안)>
 <신증동국여지승람(진안)>
 <여지도서(진안)>
 <해동지도(임실, 진안, 장수)>
 <1872년 지방지도(임실, 진안)>
 <1:50,000 지형도(1911년)(임실, 진안)>

교신 : 조성욱,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61-75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Je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 고 일: 2015년 5월 22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4일
 투고확정일: 2015년 6월 10일